



도서구입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고민과 동향

글 | 이진우

파주교하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 / ljwlib@hanmail.net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1위를 꼽으라면 단연코 ‘빠른 신간 제공’이다. 공공도서관은 타 관종의 도서관에 비해 전문서보다는 일반 대중서가 주를 이룬다. 특히 그중에서도 문학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기계발서, 재테크, 어학, IT 등 실용서다. 실용서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고, 트렌드 또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빠른 신간 제공에 대한 요구를 보다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베스트셀러 도서에 대한 쏠림현상 등으로, 이용하는 도서의 다양성은 줄어드는 반면 신간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빠른 신간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도서관들도 도서구입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서방식에서의 실물수서 도입과 계약방식에서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이다.

실물수서는 출판 즉시 납품업체에서 신간을 도서관에 가져다준다는 점과 사서가 도서의 실물을 직접 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매력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서지정보의 입력 및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해당 유통업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출판사의 도서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도서관의 실물수서구입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납품업체가 가져오는 신간의 수가 제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서담당사서가 다른 선정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입고되는 실물도서에 의한 실물수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체가 선정한 도서를 대상으로 사서가 수서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실물수서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도서구입비가 적은 도서관의 경우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되기도 한다. 즉 실물수서는 현재의 도서관이나 업체의 여건, 지역적 한계 등으로 인해 보편적인 수서방식으로 확대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온

라인 미리보기로도 확인되지 않는 도서의 판형이나 목차에 따른 구성 내용 파악 등 실물수서가 갖는 장점과 효과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보다는 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할인가 위주의 계약을 탈피하고, 도서관에서 자료 구입과 관련된 부가서비스의 요구를 통해 장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직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 수의 부족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문제, 그리고 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계약담당자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료구입비가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자료의 양과 질에 대한 선택을 고민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즉 실물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서점 연계와 같은 새로운 시도들은 아직 보편적인 방식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곳부터의 시도를 통해 주어진 여건을 능동적으로 바꾸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요구 수용과 장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더 새로운 방식의 개발로 이어졌으면 한다.

다음으로 도서선정에 있어서는 도서구입을 위한 지역 및 사회 여건의 변화와 이슈, 이용 현황 등의 사전 조사를 토대로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선정도구는 크게 세 가지이다. RSS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서점의 이용과 서평자료의 활용, 그리고 권장도서목록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선정도구들도 도서관에서 도서 선정을 위해 살펴봐야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리보기 등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권장도서목록의 문제, 수서담당사서의 개인적인 선호도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의 장서 문제, 도서선정의 문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수서 방식과 계약방식의 전환, 기존 선정도구의 활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난제이다. 또한 도서구입과 관련한 문제들은 자산으로 분류되는 도서의 성격 문제부터 시작해서 장서개발정책, 서지정보, 부족한 인력 문제 등 도서구입과 분리될 수 없는 수많은 과제들과도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의 순서나 방도를 찾는 것이 어렵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보면, 핵심장서리스트의 개발과 e-CIP 활성화에 대한 연구, 도서정가제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 정리 및 도서구입비 확보를 위한 제반 법규의 정비, 실물수서 확대나 지역서점 연계 등 다양한 도서구입 방식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이를 해결해 가기 위한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공동보조와 협력 방안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